

“친누나 살해·유기한 남동생 사형을...”

“사건이후 은폐정황 매우 악질적”

“극악무도한 범죄, 신상공개 당연”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인 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동생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됐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 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20대 남동생이 같이 사는 자신의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범죄자는 10일 간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방치한 후 강화군의 농수로에 유기했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은폐의 정황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나의 죽음을 듣지 않

위해, 누나의 핸드폰 유심(USIM)을 꺼내 본인이 누나인 척 피해자의 카카오톡과 SNS계정을 사용해 왔다”며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기도 하고 누나와 주고받은 대화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해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로 사는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자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났다’, ‘잘 지내고 있다’, ‘계속 찾으면 아예 숨어버리겠다’ 등의 대화를 조작했다”면서 “이 때문에 부모는 딸이 영영 사라질까봐 실종신고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두렵고 신상공개는 당연하다”며 “꼭 사형을 선고해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특히 남동생이 친누나를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 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시오.

청원기간
21-05-02 - 21-06-01

20대 남동생이 같이 사는 자신의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범죄자는 10일 간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방치한 후 강화군의 농수로에 유기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은폐의 정황이 매우 악질적이다. 누나의 핸드폰 유심(USIM)을 꺼내 본인이 누나인 척 피해자의 카카오톡과 SNS계정을 사용해 왔다.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기도 했다. 누나와 주고받은 대화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해서 조작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자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났다”, “잘 지내고 있다”, “계속 찾으면 아예 숨어버리겠다” 등의 대화를 조작했다. 이 때문에 부모는 딸이 영영 사라질까봐 실종신고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제 3자인 우연의 신고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만, 장제사에서 직접 장사처리를 하는 등 끝까지 가족에게 범행을 숨겼다.

이로부터 전혀 괴담같은 정황이 없었다고 여겨져 왔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해’ 농가다. 누나를 찔러 죽인 것이 너무 더러우고 끔찍하다. 사형을 25번이나 찔러서 죽인 것은 절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다. 고인을 사칭하여 수사망을 피해가려 한 것은 범행의 기사가 아예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무 교묘하고 악질적인 범죄자이다.

흉기로 수습차레에 걸쳐 찔러 살해한 점을 언급하면서 “절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30대·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해당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말 렌터카 차량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생은 최근 B씨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사진도 들고 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누나의 사체가 농수로에서 떠오르는 것을 우려해 인터넷 포털에 ‘강화 석모도’를 자주 검색한 정황도 확인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3일 오후 3시 10분 기준 6407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민정기자

광주 남부소방, 새내기 소방대원 실무 적응훈련

광주 남부소방서는 신입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서 실무실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배치를 앞둔 신입 소방관들은 지난해 12월 임용됐으며 각종 현장·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다. 소방서는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신입 소방공무원들은 오는 7일까지 화재진압과 소방전술,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방장비 조작 방법 등을 배우며 현장 실무 감각을 익히고 관내 안전센터에 발령받아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이번 관서실습을 통해 화재·구조·구급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히시길 바란다”며 “특히 안전사고 없이 교육에 성실히 임해 멋진 소방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윤희기자

“더 이상 용납 안해” 완도해경, 불법어업 집중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최근 성어를 맞아 무허가 조업, 허가 외 어구 적재 등 불법조업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법조업 사전 차단과 정상적이고 건전한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오는 9일까지 약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일부터는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은 물론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조업 집중 단속을 강력히 펼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인 완도·해남·장흥·강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과 양식장 구획도, 선박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 질서 확립 등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양식장 면허허가의 적법여부 ▲허가 외 어구 적재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실뱀장어 불법 포획 ▲금어기 기간 채취·포획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불법어구 적재·실치,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 관내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더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경찰,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시작

강진경찰서(총경 박승기)는 최근 강진의료원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소속 경찰관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이번 백신 접종은 당초 6월로 예정됐던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의 접종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접종받는다.

박승기 서장은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절대 불안해 하지 마시고 군민 및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소방, 야영장 등 무각본 가상화재훈련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최근 야영장 등 산림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무각본 가상화재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차량 4대와 소방공무원·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코로나19로 인하여 관계자 최소한 대면 자체훈련실시)은 글램핑장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근 산으로 연소확대 되는 임의적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

훈련 내용은 ▲원거리 출동 중 무선교신훈련 ▲최적 출동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파악 ▲글램핑장 구조적 취약성에 따른 연소확대 방지철저 ▲인명구조·검색 및 이송대책 ▲화재 발생 시 관계자 인명대피 교육 실시 등이다.

광양=심종섭기자

기성용, 농지법 위반 혐의 부인...경찰조사 “투기 몰라”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위해 필요하던 돈만 보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혐의로 입건된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32)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기성용을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기성용은 경찰에 “투기 여부는 전혀 몰랐다.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기성용에게 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기성용과 부친 기영욱(62) 전 광주 FC 단장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습역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마뜩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논(답)과 밭(전) 여러 필지(1만㎡ 이상)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값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

해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한 혐의도 받는다.

기성용은 자신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전체 매입 부지의 36%가량)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영욱씨도 지난해 29일 경찰에 출석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사들인 이유 등을 해명했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 매입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던 점, 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

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과 심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허술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기성용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16년도 아버지께서 축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축구센터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을 때,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동의했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걸 일임했다”며 “땅을 사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고 농지가 있었는데, 농지가 문제가 되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이슬기자

여수~광양 연결 ‘이순신대교’ 인근서 30대 숨진채 발견

원료부두 7선석 앞 20m 해상서 검은색 상·하의 착용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 사이 이순신대교 아래 해상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4시 52분께 이순신대교 광양방향 2차로에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된 흰색 승용차 내 운전자가 없다는 신고를 받고 운전자 수색을 벌였다.

해경은 같은 날 오전 10시 18분께 광양시 금호동 원료부두 7선석 앞 20m 해상에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운전자 A(31) 씨를 발견했다.

여수해경은 서울에 사는 A 씨가 오게 된 경위와 바다에서 발견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순신대교에 멈춰있던 차량에서 소지품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